

전북도, '농생명·AI·금융' 삼각축 본격화

균형발전 새 성장거점 부상 전략
 헬프·K-푸드 특구 추진 가속
 피지컬AI 제조혁신 거점화
 새만금 RE100 선도지역 구상
 연금금 특화 금융도시 지정 신청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 육성, 피지컬 AI·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 먹거리 확보, 연금금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 현안들을 본격화하고 있다.

탄탄한 사업성과 실행 기반을 갖춘 만큼, 정책적 관심이 더해진다.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농생명 분야의 핵심은 '새만금 글로벌 메가특구 1호'로 추진 중인 헬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해외 주요국인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국내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새만금 4공구(53ha)에 올해부터 10년간 3,875억 원을 투입해 헬프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 헬프산업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된다면 국가 표준모델 수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에는 2조 4,200억 원 규모의 K-푸드 수출허브단지를 조성한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급증하는 K-푸드 수요에 대응할 수출 인프라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식 중계무역역 식품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용역에서 B/C 1.16의 경제성이 이미 검증됐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핵심사업으로 반영되느냐가 향후 추진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6공구(100ha)에 들어설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청년농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생



세계 최대 지속가능 네트워크 합류 26일 도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전북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CLEI) 회원가입 인증서 전달식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산 농산물이 수출허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이 단지는 청년 일자리·정착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농업 인프라를 넘어 지역 활력을 되살리는 거점으로 부각된다.

전북 제조업은 중소·중견기업 비중 98.7%, 국내 상용차 생산의 94%를 담당하는 구조로, 다품종 소량 유연생산에 강한 피지컬 AI 적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사업화가 확정됐고, 전북대·KAIST 공동의 피지컬 AI 융합캠퍼스 조성도 추진 중이다. R&D 예산과 인재양성 인프라가 갖춰질수록 AI 제조혁신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굳어질 전망이다.

새만금의 에너지 잠재력도 주목된다. 2029년 수상태양광 1.2GW 조기 공급과 1.5GW 전력공급 역량을 갖췄다. 전북은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을 통해 지

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산업에 직접 활용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산업입지 여건을 갖춘 새만금이 RE100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기관을 집적해 연금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올해 초 금융위원회에 공식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종합금융)·부산(해양·파생금융)에 이은 제3의 금융 축으로, 기금운용·투자·금융이 한 도시에서 맞물리는 구조다. 역대 정부마다 공약으로 거론됐지만 번번이 보류돼 온 숙원이기도 하다.

최근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KB금융·신한금융 등 5대 금융사의 전북 투자 논의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으며, 공

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한국투자공사·중소기업은행·7대 공제회 유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농생명 공공기관 집적 기반 위에 금융기관까지 더해지면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사업 구상과 실행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전북이 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장수·순창 4만여 명 혜택

장수군·순창군 2년간 시범 운영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참여율 90% 안팎 기록
 소상공인 매출 연계 설계

전북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지급한다. (관련기사 8·9면)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총사업비 1,710억 원 가운데 올해 855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 결과 장수군은 전체 인구 20,922명 중 19,079명(91.1%), 순창군은 27,011명 중 24,216명(89.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군 18,357명, 순창군 22,545명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규 전입자나 실거주 미확인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각군 기본소득위원

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고물가와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줄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은 매우 뜻깊다"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이번 시범사업이 2년 후 성공적인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다음 호는 3월 4일자로 발행됩니다.

부안군, 체류인구 도내 1위...변산 관광콘텐츠 '견인'

지난해 3분기 체류인구 1위 기록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위
 해양·청년·미식축제 시너지

부안군은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시·군 가운데 체류인구 1위, 생활인구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건수가 많은 읍·면·동을 집계한 분석에서 변산면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전북 내 주요 방문지에 포함되며, 여름철 해양관광과 축제 중심의 체류형 관광 전략의 실질적인 성과가 지표로 확인됐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한 지표로, 지역의 실제 활력과 방문·소비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단순한 방문객 수를 넘어 사람들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교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성과는 여름 성수기 해양관광과 지역 축제가 맞물리며 체류인구 1위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8월에는 변산해수욕장 개장을 중심으로 야간 체류형 모델인 '변산비치캠프'를 25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운영해 밤 시간대 방문객

의 체류를 유도했으며, 이국적인 비치 캠프 콘셉트와 해변 영화 상영 등 복합 문화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체류 경험을 제공했다.

이어 9월에는 '부안 청년축제 B:ON'과 '부안 곰소갯길축제'를 통해 세대별 유입과 미식 관광의 체류 시간을 동시에 확대했다.

특히 부안 곰소갯길축제는 4만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곰백(갯갈+백주)' 파티와 갯갈 요리 런칭쇼 등 야간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서울호남향우회 등 출향인고향 방문 행사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산면은 3개월 연속 강원 홍천 화촌면, 전남 담양 담양읍 등 전국 주요 관광 거점들과 함께 주요 방문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부안의 해양·생태 자원이 축제 및 체험 콘텐츠와 결합해 대외적인 관광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이가 부안군은 이러한 양적 성과를 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잇기 위해 핵심 정책인 '부안사랑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단순히 스쳐 가는 관광객을 부안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인구'로 전환해 정주인구 감소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부안사랑인' 제도는 부안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부안사랑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부안사랑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군정 소식 및 축제·관광 정보가 제공되며, 부안군 내 공공시설과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부안군은 공공 시설 4개소를 비롯해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 46개소의 민간 가맹점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2026년까지 부안사랑인 가입자 2,000명, 가맹점 100개소 확보를 목표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전개한다. 주요 내용으로 ▲관외 거주 가입자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부안, 하루 더 살아보기' ▲부안사랑인 가맹점 이용 후 인증 시 상품권을 증정하는 '영수증 속 부안 사랑 인증' ▲축제 현장 가입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전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가맹점 혜택을 숙박, 체험, 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부안사랑인들이 부안군 어디서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부안군은 "3분기 생활인구 성과는 여름 해양관광과 청년·미식 축제가 시너지를 낸 결과"라며 "성공적인 지표에 안주하지 않고 '부안사랑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머무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이 되는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좋은일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교육부 선정 유니테크 사업 대학 | 산업부 선정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 대학

명장이 가르치는 대학 |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www.kunjang.ac.kr

군장대학교 평생 직업 교육 대학

입학상담 ☎ 063.450.8046-8

전북도, 5극3특 반영 촉구...전략산업·통합지원 건의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 참석
신재생·AI·바이오 반영 요청
완주·전주 통합 인센티브 강조
재정특례·차등지원지수 개선 건의



<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업 유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인 완주·전주 역시 인구 규모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권한을 확대하고, 상생 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차등지원지수'에 대해서는 수도권과의 단순 거리 기준을 넘어 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등 복합적인 취약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역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해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

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산업 반영과 재정특례 입법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완주·전주 통합과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대통령 지지 67% 최고치...국민의힘 17% 최저

국정 방향 '올바르다' 64%
地選 안정 여권 지지 53%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7%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이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로 나왔다.

26일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과 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67%로 나왔다. 이는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25%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29%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n=307)과 중도층(n=308)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 90%, 72%로 높은 반면, 보수층(n=252)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3%로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 사이 민주당 지지율은 최고치,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직전 조사인 3주 전에 비해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국정비전과 가치평가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63%,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60%,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 60%,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전해지고 있다 56%,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 55%로 나왔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안정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53%, 견제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34%로 여당 지지가 21%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엇비슷하고, 대구/경북에서는 '야당 지지' 응답이 우세하며, 그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n=307)에서는 '여당 지지'가 87%, 보수층(n=252)에서는 '야당 지지'가 70%로 높은 가운데, 중도층(n=308)에서는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각각 56%, 30%로 조사됐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이클레이 가입...글로벌 기후·환경 협력 강화

125개국 지방정부 네트워크
탄소중립정책 국제 연계 확대
국제공동사업·포럼 추진 본격

전북도는 26일 도청에서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가입 인증서를 공식 전달받고 세계 최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이번 가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기후·환경 협력 무대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국제사회와의 정책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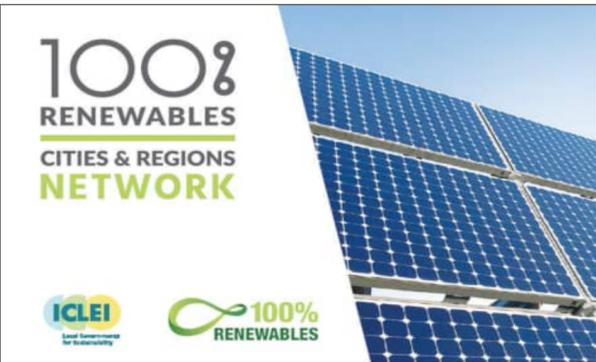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정책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받는 것은 물론 전북의 기후·환경 정책을 세계와 교류하는 공식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독일 본(Bonn)에 세계본부를 둔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UN) 공식 후원으로 출범한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현재 전 세계 125개국 2,5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유엔 정책과 연계한 국제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최대 플랫폼이다.

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산업 기반 구축,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해외 우수사례를 정책에 적극 도입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국제공동사업 참여, 정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 글로벌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에너지, 자연기반해법, 순환경제 등 국제 이



<사진=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전북의 정책 역량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회원가입은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

한 계기"라며, "국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기후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유의식 완주군의회장 "내 목을 쳐라" 공천권 거부 '사즉생'

"완주 존립 정치 거대 대상 아냐
공천권 압박은 저질스러운 협박"



유의식 의장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26일 차기 지방선거(도의원·군의원)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완주·전주 통합 지지를 위한 '정치적 옥쇄'를 선택했다.

이날 유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천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주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찬성 의결 요구에 대해 "실득을 넘어선 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공천의 향방을 암시하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 의결은 어떠한 공천권과도 맞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완주의 존속은 정치인의 유희를 따질 사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의정인 제

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완주 수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이 공천 압박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방패가 되겠다"고 의회 내부의 결속을 호소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농업 기반, 로컬푸드 체계, 산업단지 구조, 재정·복지 시스템 등 완주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재정 분석과 법적 검증, 군민 동의 없는 속도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주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외부 압박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주시 100만 광역도시 실현 '탄탄'

26일 광역도시·도시개발 7대 분야 19개 과제 발표

전주시가 전략적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100만 광역도시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시는 26일 광역도시개발조성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만 미래 광역도시 도약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한 광역도시·도시개발 분야의 7대 역점 정책을 제시했다.

7대 분야는 △전주의 핵심허브 MICE 복합단지 조성 △민자유치와 개발 지원을 통한 상생발전 견인 △효율적 재개발 및 정주환경 개선 △도시기능 고도화 및

핵심 개발사업 가속화 △공영개발 및 공공주택 조성 △주민복지 중심의 전주형 도시정비 추진 △취약 주거지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시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경제의 새 심장부가 될 MICE 복합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난달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축조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옛 대항방직 부지개발 사업도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과 감리자 지정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용역

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시는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또, 조합 현장 방문과 간담회, 실대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035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해 내년 초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 시는 북부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 검토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는 등 전주대대 이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해 북부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확충을 도모한다.

이외 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전주역세권 △덕진권역 △금암고 일원 △인후반촌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남노송동·동완산동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낙수정마을·건원왕궁지구 사업 등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을 예성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부부 결혼 비용 지원

드레스메이크업 등 최대 100만원

전주시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 결혼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기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모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여 쌍으

로, 시는 오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통합지원신청사(시청 2층)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실제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시는 전주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웨딩in전주' 참여 부부 10쌍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 '웨딩 in 전주' 사업에 참여하는 부부는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최대 100만 원과 '웨딩 in 전주' 결혼식 부대비용 100만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한 후 참여율과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계속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 미래 바꿀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본격 가동

26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단 첫 회의 개최

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2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을 단장

으로 관련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출연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전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2026년) 및 본격 시행(20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

으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회의는 △금융·신산업 △문화·체육·관광 △도시·건설 △농생생·식품의 4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의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고, 중점 유치 대상

기관과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유치 타당성 논의를 구체화하고, 향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행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김명기 교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축적된 전문성 로봇수술 선도 중증 암 수술 견인



전북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명기 교수(사진)가 로봇수술 개인 1000례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병원이 지속적으로 첨단 로봇수술 장비를 확충하고 중증 암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한 결과로, 고난도 암 수술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2009년 다빈치 S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Si, Xi, SP 모델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로봇수술 인프라를 확대해왔다.

특히 2024년 Xi, 2025년 SP 시스템을 도입하며 수술의 정밀도와 적용 범위를 한층 고도화했다.

이러한 기반 아래 병원 전체 로봇수술은 3000례를 넘어섰으며, 비뇨의학과 역시 2300례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중증 암 수술 체계를 구축했다.

이 가운데 김명기 교수는 개인 1000례를 달성하며 현재까지 1085례를 집도, 로봇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다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고난도 로봇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해왔으며, 특히 중증암 환자 치료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며 병원의 로봇수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協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북군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 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

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의역량과책임성 강화를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별법으로서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수소산업 발전 위해 기업들과 머리 맞대

전주지역 수소관련 기업들과 간담회

전주시는 26일 캠퍼스종합기술원 창업동에서 전주지역 수소 관련 기업 대표와 탄수소수산업연구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추진 중인 수소산

업 관련 주요 사업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수소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유망 수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수소놀이 체험관 건립 등 수소 관련 주요사업을 안

내했다. 또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청취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참여한 기업들은 기술력 확보와 전문 인력 채용 등 기업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며, 전주시에 수소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소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 출범

마을세무사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

전주시는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의 발대식을 가졌다.

맞춤형 세정 서비스는 기업의 다양한 세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통하는 맞춤형 세무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서비스 홍보와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온라인

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기업 특별 상담 신청서를 받는 방식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대상 기업에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기업·청사·소회의실 등에서의 현장 상담실 운영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세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청 각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세무 분야를 넘어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 공유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지방세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한 불복청구 예방 등 실질적 있는 세무 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전주시는 오는 3월 9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1대1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도전적 행동

으로 기존 돌봄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의 3가

지 유형의 서비스가 전문 인력을 통해 1대1로 제공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전주시 소재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기관에 대해 서류·자격 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탁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노인관련시설에 구조순수건 배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요양병원과 노인관련시설을 대상으로 '구조순수건'을 배부했다.

이번 배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입소자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 발생 시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조순수건은 화재 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방연용 순수건으로, 유독가스와 연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대피를

돕는 물품이다. 사용 방법이 간단해 고령자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물품 배부와 함께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피난약자 대피 유도 방법 △구조순수건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지속적인 화재 안전컨설팅과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피난약자 시설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모집'

내 달 31일까지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1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애로 해소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1차 접수를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을 지원해 제품 완성도를 높이며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1차 접수에서는 공모형 약 15건과 R&D 연계형 2건, 글로벌대학 연계형 2건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2. 도내 중소기업 마케팅 효율 증대 및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브랜드&포장 연계 분야)'을 추진한다. 공고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3월 18일

까지 접수하는 오는 3월 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개사 내외로, 1개 과제당 기업지원금 최대 2400만원(총사업비의 80%)을 지원한다. 기업은 자부담 최대 600만원(20%)을 부담하며, 부가세 10%는 별도이다(부가세 최대 300만 원) 지원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협약일로부터 약 5개월 이내)로 운영될 예정이다. 3. 2026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다음달 26일

까지 접수받는다. 타 R&D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확보와 도내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필요에 따라 지원요건은 산업부에서 인증한 소부장 전문기업 또는 총 매출액 대비 소부장 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며 전문기업 신청은 소부장넷(https://www.sobujang.net)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재)전북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1월 수출 5억6182만달러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 수입 24.9% 증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2026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은 5억6182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한 4억 6985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9197만달러 흑자를 기록

하며 전월 4163만달러 대비 2배 이상 개선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33.8% 증가한 658억달러를 기록했다. 1월 전북특별자치도 5대 수출 품목은 농기계(\$4,047만, 12.3%) △동제품(\$3,706만, 38.6%) △정밀화학원료(\$3,643만, 23.3%) △농약및의약품(\$3,635만, -46.0%) △자동차(\$3,606만, -5.9%)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수출품목 가운데 농기계·동제품·정밀화학원료가 두자릿수 증가세

를 보이며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당월에는 금·은 및 백금의 스위스 수출 및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의 캐나다 수출 등 신규 시장에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 금·은 및 백금 수출이 10위 품목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 10년간 동월(1월) 및 연간누계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별은 기존 전북 4대 수출국인 △

미국(\$1억 1,394만, 31.4%) △중국(\$1억 644만, 29.2%) △베트남(\$3,657만, 12.8%) △일본(\$2,767만, -9.3%)이 당월에도 4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 △스위스(\$2,147만, 504.5%) △캐나다(\$1,604만, 421%) 수출이 뚜렷한 약진세를 보임에 따라, 작년 동월 대비 20위권 밖이었던 순위가 크게 상승해 당월 각 5위와 7위 수출국 순위에 진입해 향후 전북의 신규 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드러냈다. /정소민 기자

전기공사협회 제61회 총회, 전북출신 이형주 회장 취임

이재수 전임회장 이사 김은식 전임회장 감사 선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최병인)는 지난 25일 충북오송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북 김제출신 이형주 중앙회장 취임과 함께 전북도회 이재수 전임회장이 이사, 김은식 전임회장이 감사로 선출되며 전북위상을 한층 높였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정읍 (유)동신전기 김용만 대표이사가 기후에너지 환

경부 장관 표창을, 장수 ㈜도성이앤씨 이준구 대표이사는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오는 개최되는 '제45회 전기공사 공제조합 총회'에서 전주 ㈜거전이 엔지 강경철 대표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며 군산 ㈜정명이앤씨 이산노 대표이사가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를 수상할 예정이다. 최병인 회장은 "새롭게 선출된 중앙회 임원과 함께 전북 전기공사업계의 권익 신장과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전주농협, 총자산 2조원 달성

내달 방카슈랑스 판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오는 3월 31일부터 방카슈랑스(은행·보험 연계상품) 판매한다. 전주농협은 최근 자산 2조원을 달성하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전주농협은 방카슈랑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11.07일 전 직

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판매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장성·저축성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농업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상담·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고객들의 맞춤형 보장 설계와 재무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기계설비건설협 전북도회, 회장 유제영 대표이사 선출

안정적 운영·권익 신장 노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유제영)는 26일 '2026년도 제38회 정기총회'에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제영 대표이사를 선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는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제13대 회장 유제영 대표이사 선출은 지난 임기 동안의 안정적인 도회 운영과 회원 권익 신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연임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3대 유제영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은 "기계설비산업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 기계설비업계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회원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 중심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우리금융 '금융인프라 구축' 환영

전북도 금융중심지 도약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26일 우리금융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도약 위한 자산운용·은행·보험 등 금융인프라 구축 결정을 환영했다. 우리금융그룹 이번 결정은 전북혁신도시 전북금융중심지 구축을 발표한 KB·신한금융 발표이후 세 번째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대 은행인 우리은행 등 200여명이 전주지역에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금융

그룹은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마케터 채용 등 계열사를 추가 진출시켜 근무인원을 3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체 운영하는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소재 핀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기부물품 판매사업장을 추가 설립해 전북지역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신협X전북현대 '3년 연속 공동홍보' 협약체결

전북 브랜드 가치 강화 가족 참여의 장 마련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전북신협과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모터스FC(이하 전북현대)가 '2026 공동홍보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신협과 전북현대의 공동홍보협약은 전북 브랜드 가치 강화와 전북신협 가족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홍보협약은 '24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31일 전북현대와 부천FC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6년 전북

현대 K리그1 정규리그 홈경기(19경기)에 전북신협은 각 조항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와 영상을 LED 광고판에 송출한다. 광고문구는 전반전 7회, 후반전 7회 총 14회 송출되며 TV 방송을 통해 전국 K리그1 팬들에게 전해진다. 아울러 전북신협 Family-Day 평생어부바 사랑의골 협약 또한 추진된다. 전북 70개 신협은 '24년 제1회 공동홍보 스폰서십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현대를 공동후원해오고 있다. 전북현대는 홈경기장에 LED보드와 전광판, 전광판에 전북신협, 신협ON 밴크 등의 문구를 홍보하며 금융소비자와 K리그 팬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의



계기가 됐다. /정소민 기자 <사진=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북도 '2026년 사방사업 기술간담회' 개최

사방사업 추진방향 공유

전북도는 26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26년 사방사업 기술간담회'를 개최하고 우기 전 주요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속도전'에 돌입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군산·익산·남원 등에서 시간당 100mm 이상 기록된 극한호우 사례를 공유하고, 재해예방 중심의 건설한 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산림환경연구원을 비롯해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시·군 산림조합, 산림토목법인, 산림기술용역업체 등 현장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300억 100만 원을 투입해 △산림유역관리 15개소 △

사방댐 31개소 △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16ha △사방댐 유지관리 49개소 등 총 13개 유형의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업 비중을 전년도 50%에서 올해 80%까지 대폭 확대해 위험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재해예방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적·유역연결형 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도 전년 2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크게 늘린다. 도는 올해 사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모든 사방사업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전체 사업 물량의 80%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수의생명자원은행 '수의생명자원 연구개발' 성과 창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orean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KVCC)의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수의생명자원 분야 382건, 신규수탁 343건을 기록해 연간 목표치 대비 각각 191%, 수탁 171.5%를 달성했다. 이로써 누적 자원은 총 11,555주에 달한다. '25년 한 해 분양된 자원의 수요 차별 비중은 산업체 63.1%, 학계 32.4%, 국립연구소 3.6% 순이며, 주요 분야 목적은 백신개발, 치료제 연구, 진단기술 고도화 등으로 나타

났다. 또 산업체와 학계 등에서 총 16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분양된 자원이 동물용약품 상용화 연구의 소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역본부는 향후 자원 수집 확대, 확보 체계 고도화, 자원 관리 효율화 및 병원체 특성분석 연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5개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과 협력해 자원 수집 및 자원 특성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실시

111억원 규모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전주시 소재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주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1억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이에 전북은행은 총 111억원 규모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상담은 26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전주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은행은 올해 유동성 공급 강화 및 지역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상생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건강관리협 전북지부 '국가건강검진 활성화'

2030세대 대상 집중 홍보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활성화' 및 수검 독려를 위한 집중 홍보에 한창이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관내 주요 대학교를 순회하며 이번 활동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2030세대의 검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는 대학 내 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 교내 전광판 및 전자게시대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졌다. 건협 전북지부는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보건교육, 지역 정화 활동을 통한 건강환경 가꾸기,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후원 등 공익 의료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정소민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AI 미래교육' 비전 발표

AI 중점 학교 운영 확대 등 전북 전역에 AI 교육 생태계 추진



천호성 예비후보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AI 미래교육' 비전 정책을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 정책 비전은 전북지역 교육 실정에 맞춘 AI 기반 공공학습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미래교육 혁신 전략이다. 특히 천 예비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AI를 학습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 학습환경 조성 △AI 기초소양 교육 강화 △AI 중점 학교 운영 확대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전북 전역에 AI 교육 생태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프리학교 시범 운영과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병행해 균형 잡힌 디지털 활용 문화를 조성해 '질문 중심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함께 키

워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특성화고·과학교 등과 연계한 AI 심화교육 모델 운영과 영재학교·마이스터고 등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천 예비후보는 이번 'AI 미래교육' 비전이 실현되면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함께 진로·진학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학습 격차 해소와 지역 학교 소멸·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AI 중심 교육이 기술 편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문·예술적 균형 교

육 추진도 밝혔다. 관련해 '1인 1예술 융합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I 기술 역량과 인문·예술적 감수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생각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격차 없는 전북형 AI 활용교육과 공공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문학적 성찰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AI 교육을 통해 기술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미래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대학교 소속 연구원, 스리랑카 교수 임용

스리랑카 우다얀타 박사
칼하리 연구원 주인공

국립군산대학교는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수산생명의학과 해양기생충학연구실 소속 우다얀타 박사(Dr. H.M.V. Udayantha)와 칼하리 연구원(Ms. W.A.A.H. Kalhari)이 각각 스리랑카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며 국제 학술 무대에 한국 수산 연구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다얀타 박사는 스리랑카 루후나대학교 이학부 동물학과 교수에, 칼하리 연구원은 라자타타대학교 기술학부 생물공정기술학과 교수에 임용됐다. 이들은 국립군산대 박경일 교수의 지도 아래 해양기생충학 및 패류 양식학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쌓은 인재들로 확인됐다. 임용은 한국 수산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국립군산대 해양기생충학 연구실은 어패류의 기생충성 질병, Perkinsus 속(屬) 병원체를 비롯한 수산생물 병리 연구 분야에서 국내외의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해수는 상수에 대응하는 패류 양식 기술 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저탄소 시대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패류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연구 환경에서 훈련된 연구자들이 스리랑카 대학에서 교육·연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 스리랑카 간 수산·해양 분야 학술 교류 가교역할도 기대된다. 국립군산대와 스리랑카 대학 간 패류 양식 분야 협력 방안이 임용된 교수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2026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황조근정훈장 11명 등 총 82명 공로 인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6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재직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서 공직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들의 공적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정년퇴직 유·초·중등 정부포상 대상 교육공무원들은 총 82명이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수

외 10명 △홍조근정훈장 전주하가초등학교 교사 최영숙 외 32명 △녹조근정훈장 군산중앙유치원장 이경숙 외 25명 △옥조근정훈장 김제고등학교 교사 고현옥 외 6명 △근정표장 전주온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조미숙 △국무총리표장 함열중학교 교사 고경철 등이 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선생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은 전북교육의 소중한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그간의 지혜와 경륜이 우리 교육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총 790개 학교 석면 100% 제거

'석면 제로화' 계획 2년 앞당겨

전북 지역 학교 건축물의 석면이 100% 제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790개 학교에 남아 있는 석면이 0㎡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당시 897개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실態 조사를 벌여 총 165만 3681㎡의 석면 지도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실시해 국제 규격 축

구장(약 7,140㎡) 230개 규모의 석면을 제거했다. 학교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사업 축소 10년 만에 석면 제로화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2027년 석면 제로화' 계획을 2년 앞당긴 성과다. 이번 석면 제로화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새학을 시작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전북교육청은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석면 제거와 함께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교육시설 안전 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현대, K리그 최초 'LED 리본 디스플레이 보드' 도입

스마트 경기장 혁신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K리그 최초로 LED 리본 디스플레이 보드(Ribbon LED Display Board)를 구축, 경기장 콘텐츠와 관람 경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번에 설치된 LED 리본 디스플레이 보드는 관중석 2층(미들 데크)을 따라 경기장을 감싸는 연속형 디스플레이로 경기 흐름과 연동된 실시간 연출은 물론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이다. 기존 대형 전광판 중심의 단방향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경기장 전반을 활용한 입체적 콘텐츠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현대에는 리본 전광판을 단순 광고 수단인 아닌 '경기 연출과 팬 경험을 확장하는 도구'로 정의하고, 유럽 축구 리그와 북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보편화된 운영 사례를 분석해 K리그 환경에 맞는 활용 모델을 구축했다. LED 리본 디스플레이 보드는 득점 및

주요 장면 연출, 선수 소개와 응원 유도 메시지, 이벤트·안전 공지, 관람 동선 및 시설 안내, 하프타임 공연과 그라운드 이벤트 연계 연출 등 경기 전·중·후 전 과정에서 폭넓은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북현대에는 팬들에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몰입감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리본 전광판 구축은 전북현대 스마트 경기장 구축 사업의 핵심 축 중 하나다. 전북현대에는 '몰입·편의·안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팬 체감도가 가장 높은 인프라로 LED 기반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선택했다. 리본 전광판은 총 5개로 구성돼 동·서·남측 스탠드에 설치됐으며, 모든 전광판의 높이를 1,280mm로 통일해 경기장 전체를 하나의 리본처럼 감싸는 시각적 효과를 구현했다. 특히 서포터즈(Mad Green Boys)의 현수막과 응원 문화가 자리한 북측 스탠드는 유지하고, 나머지 3면의 전광판 규모를 확대해 팬 문화 존중과 연출 효과를



동시에 고려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현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주최한 '2025 스마트 경기장 구축 사업'에 참여해 수행 구단으로 선정되며 본격 추진됐다. 동·서측 전광판은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했으며, 남측 전광판은 구단 자체 투자를 통해 추가 설치해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장정철 기자

리본 전광판 구축과 함께 그라운드 LED 보드 역시 전면 교체·확대됐다. 새롭게 리뉴얼된 그라운드 LED 보드는 기존 대비 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폭을 대폭 확대해 축구장 3면을 모두 커버하는 구조로 완성되며, 경기장 전반의 연출과 콘텐츠 전달력을 한층 강화했다. <사진=전북현대>

전북현대, 홈 개막전 14시즌 무패 기록 도전

전북현대모터스FC가 홈구장 전주월드컵경기장(전주성)에서 K리그 홈 개막전 14시즌 무패 기록에 도전한다. 전북현대에는 오는 3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천FC1995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전북현대에는 K리그1 개막에 앞서 열린 '쿠광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2026시즌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20년 만에 재개된 슈퍼컵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전북현대에는 상승 흐름을

홈 개막전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시즌은 정정용 감독 체제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린 전북현대에는 새로운 사령탑 아래 조직력과 에너지를 재정의해 홈 팬들 앞에서 시즌 비전을 명확히 보여줄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4일 오픈된 홈 개막전 티켓 예매는 26일 오전 10시 기준 1만 8천여 석(시즌티켓 포함)을 돌파하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경기 당일 2만 명 이상의 관중이 전주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정월대보름이란?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로
음력 1월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명절

익산시 '길 위의 인문학' 공모 1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영등·유전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감사비 등을 포함해 도서관별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다.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사유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익산시 도서관은 올해로 1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지역 인문학 활성화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익산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시민과 만날 계획이다.

강연과 탐방, 체험을 연계한 입체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생활밀착형 체육도시 조성"

의료·요양 통합 지원 내달 전국 시행 대비 복지 안전망 강화

군산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체육을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시민 건강관리이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삼고 체육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군산체육센터 개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중심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월명종합경기장 내 월명국민체육센터를 2028년 준공 목표로 건립 중이고 국립군산대학교 디지털스포츠센터 건립 협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보강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종목 다변



<사진=군산시>

화와 시설 집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4건의 국제·전국 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약 5만6천여 명이 군산을 방문했으며, 숙박·음식·관광 소비 확대 등으로 약 19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에는 16개 국제·전국 대회를

개최해 연간 4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약 2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도 노후 체육시설의 체계적 개선과 운영 전문화, 스포츠·관광 연계 강화를 통해 '체육이 도시 브랜드가 되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늘푸른학교 졸업식 24명 배움의 결실

군산시는 26일 금강도서관 금강누리다목적실에서 제9회 군산시늘푸른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24명과 가족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서동수 군산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 8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초·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산시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지금까지 217명의 초·중학 학력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초등 16명, 중학 8명 등 총 24명이 학사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으며, 특히 중학학력 졸업생 6명 전원은 군산평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으로, 만학의 꿈을 이어가게 돼 의미를 더했다.

졸업식은 군산YMCA 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졸업장 및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송사와 답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자리를 지켜낸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졸업장은 단순한 학력 취득을 넘어 배움에 대한 용기와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알쓸신잡 정리정돈'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6일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잡담사니)' 정리정돈'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직강박 및 정리정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옛흙정리정돈컨설팅, 무균지대, 드림청소, 종합청소 효자클린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협의회, 군산시새마을회, 세아베스틸 봉사하는 우리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 현장 운영 시 예외사항 및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

'알쓸신잡 정리정돈' 프로그램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연간 15가정을 대상으로 정리정돈(4가정), 방역(5가정), 청소(6가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사랑상품권, 1040억으로 확대 발행

3월부터 할인율 12% 지역 경제 활력 기대

정읍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 총 1040억원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오는 3월부터 12% 할인율을 12%로 상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1040억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정읍사랑상품권을 104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상품권 조

기 소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중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춰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의 확대다. 시는 국비 교부 조건에 맞춰 오는 3월부터 기존 10%였던 선할인율을 12%로 올린다. 개인당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이며, 상품권 최대 보유 한도는 200만원으로 설정해 계획적인 소비와 원활한 유통을 돕는다. 상품권 구매는 매일 1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또한, 시는 시기별 소비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해 월별 발행액을 탄력적으로 조

정할 방침이다. 평소에는 매일 80억원 규모로 발행하지만, 소비가 집중되는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 명절, 12월 연말에는 평달보다 20억원을 늘린 100억원 규모로 발행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읍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할인율 상향 조치가 지역 자급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치킨로드 방문하고 다이로움 혜택 받자

농식품 가공산업 선도기업 투자 확대

익산시가 중앙동 치킨로드를 즐기고 다이로움 혜택도 받는 행사를 마련했다. 참여형 인증 행사를 통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는 3월 2일부터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중앙동 치킨로드 SNS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계화림을 비롯해 치킨로드 참여 매장인 △연품담 △BBQ분화점 △삼남극장 △꽃피우담 △bhc 익산역점 △기영이 숯불 두 마리치킨 중앙점 △하리관매점 프레시마켓 등 총 8개 매장

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매장에서 촬영한 음식 사진이나 영수증, 영상 등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해시태그 '#치킨로드', '#다이로움'과 함께 게시한 뒤, 네이버폼 신청서에 인적 사항과 SNS 게시물 캡처 화면 및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네이버폼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 시작 화면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게시된 SNS 인증 이벤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일주일 이내에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포인트 1만 원이 지급된다.

포인트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하나의 영수증으로 1회만 인증이 가능하

다.

특히 시는 다이로움 운영사인 비즈플레이와 협업해 지급된 포인트를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킨로드뿐 아니라 인근 상권 전반의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진 청년경제국장은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치킨로드 방문을 유도하고 SNS를 통한 홍보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킨로드 매출 증대는 물론 문화예술의 거리 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1894년 그날의 함성" 정읍시, 고부봉기 재현 성료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대비 봉사 리더 양성

132년 전 부당한 권력에 맞서 평등 세상을 외쳤던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정읍 일대에 다시 울려 퍼졌다.

26일 이평면과 고부 일원에서 열린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새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고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이평, 고부 등 옛 고부군 지역 주민들과 관람객들은 직접 농민군

이 돼 역사적 장면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나눴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 '농민군 진군 행렬'이었다.

이평면 예동마을에서 출발해 말목장터로 향하는 대열은 1894년 당시의 긴장감과 절기를 실감나게 재현했다.

말목장터에 도착한 대열이 격문을 낭독하자, 현장을 지켜보던 관람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어 진행된 공식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서사적으로 풀어낸 창극과 첨단 가상현실(VR)을 접목한 융복합 공연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행사는 옛 고부 관아 터(현 고부초등학교)에서 펼쳐진 '마당극'으로 마무리

됐다. 조병갑의 폭정에 분노한 농민들이 "제폭구민(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함)",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목청껏 외치며 관아를 장악했던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생생히 그려내며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이학수 시장은 "1894년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봉기한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이번 재현행사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그날 농민들이 꿈꿨던 평등과 자주, 숭고한 대동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겨가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27일 접수 마감

1인당 30만원씩 지급

정읍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 최종 마감됨에 따라,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신속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당부했다.

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만 1527명이 대상이며, 지난 1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해 2월 24일 기준 전체의 약 98.3%인 9만 9854명이 수령을 마쳤다.

시는 장기간 타 지역에 머무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배려해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했으나, 오는 27일로 접수가 완전히 끝난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마감일인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선불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신청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꼭 신청해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익산역 교통혼잡 해소 대책 모색

택시 대기 공간 지정 방안 등

익산시가 익산역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상생하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26일 익산역 환승장에 택시 전용 대기 구간 지정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익산역 환승장과 인근 도로는 열차 이용객 차량과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뒤섞이며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시는 그동안 고정형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열차 출발·도착 시간대에는 혼잡이 반복돼 왔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역 환승장을 찾아 택시업계 관계자, 이용객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택시업계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요청과 일부 이용객의 단속 강화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청년 취·창업 지원 협력체계 강화

군산시 청년플(센터장 김진아)이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산시 청년플은 26일 '2026년 청년플 센터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청년 정책 및 고용지원 기관들과 지원사업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청 인구대응담당관을 비롯해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상공회의소, 국립군산대학교 취업

지원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지역 내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14곳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군산시 청년플 주요 사업 △2026년 군산시 청년정책 방향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전국 주목'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벤치마킹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제1호로 조성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익산시는 26일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총정남도 관계자들과 벤처캠퍼스 운영 현황 및 시설·장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벤치마킹은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마련됐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익산 캠퍼스의 운영 체계를 참고하고,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방문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오산입팀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평창군 경제과, 총정남도 바이오산업과 관계자로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 강원테크노파크, 강원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여했다.

익산시는 익산 캠퍼스 운영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현재 조성 중인 예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운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운영 계획과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조성된 익산 캠퍼스의 운영 경험이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먹깨비' 가입자 1천명 돌파

3월 1~7일까지 감사 이벤트...소상공인 경영 도움 '특특'

김제시가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가입자 수 1,000명 돌파를 기념해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앱 가입자 1,000명 달성 기념 감사 할인 이벤트'는 오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먹깨비 앱을 통해 즉시 결제 주문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1,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특히 해당 쿠폰은 기존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행사 기간 중 1일 1회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배달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준비된 1,000개의 쿠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쿠폰 지급은 조기 마감된다.

지난해 11월 11일 첫선을 보인 먹깨비는 도입 이후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누적 회원 수는 1,087명을 기록하며 1,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매출액은 약 7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약 7,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안겨주는 등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결제 시 김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12% 선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

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착한 소비' 플랫폼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규 및 기존 가입자의 재접속을 유도하고, 공공 배달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켜 이용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먹깨비 가입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 이벤트가 고물가로 힘든 시민들에게는 풍성한 혜택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관광택시 활성화 방향 모색

주요 관광지·향후 관광 사업 대상지 등 점검

부안군은 지난 25일 정화영 부군수가 관광객 맞춤형 이동 서비스인 부안관광택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광 현장 기반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택시에 직접 탑승해 주요 관광지 및 향후 관광사업 대상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광택시 운행 동선을 따라 주요 관광지 접근성과 이동 흐름을 살피고,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과 체험형 관광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안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 기사가 관광객 일정에 맞춰 관광지를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객 전용 교통수단이다. 관광객이 여행 시간과 일정에 맞춰 코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부안을 방문한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 그룹 관광객에게 특히 적합하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관광지와 체험형 관광코스를 연계함으로써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여행 만족



정화영 부군수가 관광택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부안군>

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군은 관광택시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관광택시 기사 대상 친절 서비스, 해설 교육 등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 요급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아울러 관광택시 운영과 함께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제공, 관광 콘텐츠 발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택시 운영을 통해 외부 관광객의 편의성과 이동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택시와 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부안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상

단가·행정 비용 등 ↑ 내달 1일부터 반영

고창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정부의 여권 발급 수수료 조정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해 왔으나, 차세대 전자여권의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내달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21년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낱색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여권 제작 단가와 관련 행정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수수료 인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년 유효기간의 26면 복수여권은 4만 7,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58면 복수여권은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인상되며, 미성년자의 여권과 단수여권도 각각 2,000원씩 오른다.

기존 수수료는 오는 28일까지 접수한 건에 한 해 적용되며, 3월 1일 접수분부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여권 발급을 계획 중인 군민께서는 정확한 수수료 금액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와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여권 발급을 계획 중인 군민께서는 정확한 수수료 금액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 1매와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폴리텍대학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스마트 자동화 설비 실무 등 훈련생 선발

김제시는 청·장년층의 취업문제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에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훈련생을 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청·장년층 미취

업자로, 과정별 약 20명을 선발해 4~6개월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수료 후에는 채용협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과 연계해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생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교육 종료 후에도 6개월간 고용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가 지원된다.

올해 교육 과정은 △스마트 자동화 설비 실무 △AI 기반 전기 설비 실무 과정으로 구성되며, 3월 중 훈련생을 모집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경제진흥

과 ☎ 063-540-3318)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3년간 총 90명의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중 68명이 취업에 성공해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 양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훈련기관에서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훈련생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업 후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개최

28일~3월 3일까지

부안군은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3월 3일)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부안 일원에서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10시부터 변산면 마포마을 일원에서 마포당산문화계승위원회가 주관해 당산제, 용졸꼬기, 길놀이 등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진행되며 부안밀알회와 관 해뜰마루에서 부안 밀알회가 주관해 제례행사, 민속놀이, 소원배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개최된다.

정월대보름 하루 전인 2일 오전 10시부터 내소사 일주문 앞에서 내

소사석포리당산보존회가 주관하는 당산제 행사가 열리고, 오후 3시에 매창공원에서 부안문화모임 도율이 주관하는 달집태우기 및 전통 문화 체험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정월대보름날인 3일에는 △돌모산당산 △소의강간지주 및 서문안당산 △모산마을 등 부안 지역 곳곳에서 수십년간 명맥을 이어온 대보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통해 전통 세시풍속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한 해의 건강과 행복, 풍요를 기원하며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한식 장인에게 배우는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 운영

김제시가 전통장류의 맥을 잇기 위해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의 발효음식을 한식 장인에게 배우는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을 운영한다.

금년 처음 운영되는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은 15명을 정원으로 즉산면 장류 체험장에서 진행된다.

김제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은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총 10회간 이뤄지며, 한식 예술장인 지평선연미향 강은미 대표를 초빙해 김제 콩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제조 및 활용법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운영된다.

전통장류교육은 농업인 및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좋은 과정으로 모집 2일만에 접수마감 됐으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음식 가공·저장기술능력 함양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인 장류 음식을 쉽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이 운영돼 김제 콩 산업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소득증대와 연결될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지속가능한 복분자 왕국 재건"

복분자산업 활성화 간담회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수매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복분자 왕국 재건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청2층 회의실에서 복분자 수매기관(지역농협), 가공업체, 생산자 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고창군 내 복분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매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생산·유통 기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복분자는 생산농가(2024년

1705농가→2025년 1921농가), 재배면적(2024년 363ha→2025년 423ha), 생산량(2024년 1470톤→2025년 2000톤)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고창군은 부서별 협업 대책을 발표하고 복분자 수매장려금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복분자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화작물인 만큼, 수매 기반을 안정화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대상 급식지원 강화

김제시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급식 지원 사업' 'ON담꾸러미'와 '든든한끼'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급식지원 사업은 김제시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의 생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식생활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ON담꾸러미'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되며, 상반기에 관내 40여 명의 청소년에게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제공된 꾸러미는 즉석밥과 반찬류, 간식 등을 담아 청소년들이 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유미 센터장은 "ON담꾸러미와 든든한끼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청소년의 일상을 지지하는 기본 지원"이라며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서모양지구대, 사기 예방 신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사진=고창군>

고창서모양지구대, 사기 예방 신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모양지구대(대장 황문주)는 지난 26일 주시리당방 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해 2,400만원 상당의 군민 재산을 보호한 고창신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정기 예금 2,400만원을 해지한 뒤 불상자에게 송금하려던 것을 수상한 여긴 고창신행 직원은 즉시 지급을 보류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동 조치를 취했다.

충동한 경찰관이 계좌 거래 내역과 정황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신한투자증권 직원을 사칭한 주시리당방

사기' 수범임을 파악해 신행직원과 같이 약 1시간 30여분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급정지 및 연장 조치가 이루어져 총 2,400만원 전액을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고창신행 직원의 책임감 있는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산림조합, 2026년 나무 시장 개장... '성큼 다가온 봄'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이 봄을 맞아 나무 심기 분위기 조성 및 무량한 묘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38일간) '2026년 나무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장·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무시장에서는 고창지역 기후에 적합한 감, 밤, 대추 등 유실수를 비롯해 조경수, 꽃나무류, 약용수 등 다양한 수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 지역 여건에 적합한 무량 묘목을 염신해 공급함으로써 식재수목의 건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은 산림경영지도원이 현장에 배치돼 묘목 심는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초보자도 쉽게 나무를 심고 관리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고창군산림조합 나무시장은 산림조합 청사내 주차장에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산림조합(063-563-2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기본소득' 첫 지급 경제 선순환 시동

월 15만원 지급...지역순환 '실협' 순창사랑상품권 사용 설계 8인가족 수령액 전액 기부하기도

순창군이 26일 농어촌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지급하며 지역순환형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군은 사전 신청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계기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첫 지급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읍·면 대표에게 상징적으로 첫 지급 카드를 전달했다. 주민들과 함께 "월 15만 원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순창"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정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첫 지급과 함께 의미 있는 기탁도 이어졌다. 금과면 호치마을에 거주하는 여진구 씨가 8인 가족의 농어촌 기본소득 1회차 수령액 전액인 120만 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어촌 정책 실행이



<사진=순창군>

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 순환을 동시에 설계한 구조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매일 일정 규모의 소비가 지역 상권에 유입되는 구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고, 영세 상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면 단위 순환구조 설계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실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생활서비스 수

요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역 실행조직과 예비 창업 주체에게 제공해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설계는 행정이 책임 있게 추진하고, 실행 과정에서는 지역의 참여를 확대해 기본소득이 일회성 재정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반 정책으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어촌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수요 기반 데이터 축적과 면 단위 실행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농어촌 정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에너지·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내달 9~19일 74명 선착순

순창군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 분야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1~2년간의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된 포인트는 연 2회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자동차 분야는 참여 전후 자동차 주행거리를 비교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7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ar.cpoint.or.kr)에 신규 등록 또는 재참여 신청 후, 문자로 안내받은 URL을 통해 계기판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과 인센티브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스마트경로당 온택트 콘테스트 성료

6개 경로당 실시간 화상 연결 비대면 여가·소통 모델 확산

남원시는 26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온택트 콘테스트' 결승전을 개최하고, 경로당 중심의 비대면 여가·소통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충분한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결승전은 스마트화합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자는 시청 지하 스튜디오, 참가자는 소속 경로당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했으며, 상교동 경로당(죽향동), 농원마을 경로당(금동), 장항 경로당(장항), 제천 경로당(주생면), 외평여성 경로당(주생면), 진목여성 경로당(보절면) 총 6개의 경로당이 결승전에 참여했다. 결승 읍면동 타 경로당도 스마트화합의 시스템을 활용해 함께 시청하며 응원



스마트경로당 결승전 <사진=남원시>

참여해, 경로당 간 '연결'과 '함께 즐김'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날 진행은 남원시 홍보대사 개그맨 김범준이 맡아 현장 몰입도를 높였으며, 주생면 제천경로당 어르신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광플랫폼 공동 운영 협약

38개 업체 참여 확대 운영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추진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이사 선윤숙)은 지난 24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2026년 관광플랫폼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순창군청 관계자와 관광플랫폼 참여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순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광플랫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쿠폰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관광객 이용 편의성 제고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향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사업을 추진해 관광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쿠폰 운영 및 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관광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순창관광플랫폼 사업은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관광업체를 소개하고, 쿠폰북을 통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4개 업체 참여로 시작해 2026년에는 38개 업체로 확대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단과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는 관광플랫폼 사업과 디지털 관광 서비스의 연계로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 확대에 이바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지역 4개 대학과 '교육발전특구' 맞손

완주군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분야의 핵심 동력자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관내 대학들과 손을 잡았다.

26일 완주군은 기전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4개 대학과 교육발전특구 대학 연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완주군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군민을 위한 대학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각 대학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지역 성장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142억 규모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완주군이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농촌지도사업에 나선다.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심의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 사업은 총 81개로, 14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다각적인 지원을 전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업 지원단 운영 △가공용 쌀 확산 및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 포함돼 농촌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비한 시설 원예 환경 개선과 아열대 과수 밭갈 지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 등 현장 맞춤형 신기술을 대거 도입한다. 특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과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완주 농업의 첨단화를 이끌 계획이다.

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 및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시행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7개 지역 정월대보름 행사 지신밟기·달집태우기 진행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남원시 곳곳에서 한 해의 액운을 쫓고 복을 부르는 민속행사의 향연이 펼쳐진다.

남원시는 오는 3월 2일과 3일 이틀간 주생면, 인월면, 왕정동 등 관내 7개 지역에서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월, 왕정, 사매, 주생, 금지, 대산, 덕과 등 총 7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특색을 살려 진행된다.

터울림 공원과 지신밟기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기원제(제례)를 지낸 뒤 대보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를 통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행사는 3월 2일 주생면을 시작으로 대보름 당일인 3일에는 인월면과 왕정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본격적인 행사가 이어진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 잊혀가는 우리 고유의 풍습을 체험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밀착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우조깅 교실, 한의약기공체조교실, 시니어 디지털교실(스마트폰)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슬로우조깅 교실'은 대화 가능할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중강도 운동이다. 특히 무릎 부담이 적어 중·장년층과 운동 초보자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전문 강사 지도 아래 준비운동, 자세 교육,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의약기공체조교실'은 호흡과 명상, 완만한 동작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기혈 순환 촉진과 근력·유연성 향상을 돕는다.

'시니어 디지털교실(스마트폰)'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본 기능과 문자·사진 전송, 공공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1:1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디지털 기기 사용 부담을 줄이고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키오스크와 모바일 민원서비스 이용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은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용성로 135-9)에서 주 2회 운영되며, 참여 신청 및 세부 일정은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팀(620-794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2800억 규모 전북 첫 AI 데이터센터 유치

테크노그린·LG전자·한전KDN 테크노밸리산단 20MW 건립 협약 2029년 상반기 운영 개시 목표

전북 최초로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단지 2,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26일 완주군은 군청 전라회의실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테크노그린 대표, LG전자 어플라이드사업담당, 한전KDN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2029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완

주 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2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결집한다.

해당 센터는 올해 초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공업용수와 통신 인프라 등 필수 기반시설이 충족된 상태로 향후 지역 내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별 협력 사항도 구체화했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공공데이터 제공을 맡으며, ㈜테크노그린은 사업 총괄과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한다.

LG전자는 기술 참여와 구축 설계, 건

축,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한전KDN은 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전담해 인프라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외에도 협약 기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완주군에 전북 최초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완주군이 국내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주민 소통 거점 '구이정담센터' 준공

총 40억 투입 2층 규모 건립 도서관·무인빨래방 등 조성

완주군 구이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 '구이정담센터'가 마침내 준공됐다.

지난 25일 완주군과 주민추진위원회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을 열고 새로운 거점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8억, 도비 3억 6,000만, 군비 8억 4,000만)을 투입해 연면적 820㎡, 지상 2층 규모로 건



25일 개최 구이정담센터 준공식

<사진=완주군>

립한 구이정담센터는 구이면 9개 법정리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센터 1층은 다가온 가족문화센터와 어르신 쉼터, 주민 소통 공간, 무인 빨래방 등 생활 밀착형 시설로 꾸며지며, 2층은 모악작은도서관과 다목적실, 세

미나실을 갖춘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뒷받침한다.

군은 공간 조성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체육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특례 적용을 통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2026년 영유아 보육수급계획 확정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 5건 의결 농어촌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남원시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영유아 보육계획과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공공보육 기반을 넓히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026년도 남원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2026년도 남원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농어촌지역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심사 등 총 5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으

로,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보육 운영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특례 적용을 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군관광협의회, 이윤승 회장 제6대 연임



(사)무주군관광협의회는 지난 25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세미나실에서 16차 정기총회를 갖고 현 이윤승 회장(사진)을 제6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윤승 회장은 앞으로 4년 동안 무주군의 관광협회를 이끌게 됐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무주군 관광협의회는 무주군이 세계적 으뜸 관광지로 우뚝 설수 있도록 행정과 함께 힘을 모아 관광지의 편의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개선,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이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주)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과 (사)한국산악사진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무주사진가협회 회장, 무주문화원 수석 부원장, 안성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약하면서 무주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리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번암면 발전위원회, 1차 정기총회 개최

장수군 번암면 발전위원회(위원장 소순배)는 지난 25일 번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발전위원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추진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와 함께 올해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되며 조직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참석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면정 주요 현안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면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소순배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의 매력, 걸으며 만나요” 진안고원길 함께걷기 운영

진안고원길(대표 이재현)이 2026년 ‘진안고원길 함께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총 6회 개최되며, 첫 걷기 행사는 오는 28일에 시작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안고원길을 처음 접하는 초보 보행자나 혼자 걷기보다 여럿이 함께 소통하며 걷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회차별 최대 20명 규모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해 참가자들이 동행자들과 보다 친밀하게 교류하며 진안고원길만의 고즈넉한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회씩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진안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고원길 이재현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진안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나누며 일상의 활력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 참가 신청과 자세한 일정 확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진안고원길’을 검색한 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26일 전달식 및 상생소비 한마당 행사 추진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 처음 지급했다.

이에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달식’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상생소비 한마당’ 행사를 군청 군민회관 및 잔디광장에서 개최하고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의 힘찬 개막을 군민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훈식 장수군수, 노홍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기본소득 전달식은 그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제1회 기본소득 수령자들과 함께 청년 활력센터 조성, 이동마켓 운영 등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공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 처음 지급했다 <사진=장수군>

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달식에서 장수군 기본소득 1호 수령자에게 장수사랑상품권을 전달할 때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서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징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군청 잔디광장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상생소비 한마당’이 함께 열려 행사 분위기를 한

층 고조시켰다.

한마당 행사장에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총 14개의 판매·체험 이벤트 부스가 운영됐으며 군민들은 이날 첫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선순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필봉정월대보름굿 개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28일 강진 필봉마을서 개최

임실군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의 본고장답게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45회 필봉정월대보름굿’이 오는 28일 강진 필봉마을에서 개최된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마을의 안녕과 공동체의 화합을 다짐하는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이다.

필봉정월대보름굿은 이러한 전통의 원형을 45년간 꾸준히 계승·재현해 온 대표적인 마을 전통문화 축제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의례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통문화 체험의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는 새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당산제, 샘터, 마당밭이, 판굿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백미는 관람객들의 소망을 담은 소지를 매단 달집태우기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속에 묵은 액운을 씻어내고 새해복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식으로 답답이 타오른 뒤에는 모두

가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대동놀이 판굿이 펼쳐지며 화합의 절정을 이룬다.

군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밭굴로 되살아난 대차리의 시간” 사진전 개최

무주상상반디숲 생활문화센터

무주군은 삼국시대 무주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사진전 “밭굴로 되살아난 대차리의 시간”을 오는 3월 29일까지 무주상상반디숲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무주의 산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

로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2018년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발굴 현장과 고분 내부, 출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출토 유물 등 오랜 시간의 흔적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교하게 축조된 석곽묘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굽다리 긴 목항아리’, ‘굽다리 접시’, ‘짧은 목 항아리’, ‘뚜껑’ 등의 토기류와 ‘철기 유물’, ‘금동 귀걸이’ 등 무주지역

삼국시대 고분 문화와 생활상이 담긴 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동훈 무주군청 태권문화과장은 “대차리의 시간은 과거 유물을 발굴해 현재의 기록으로 되살린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한 전시”라며 “18점의 사진 속에 담긴 무주의 옛 시간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2026년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3월 11일까지 양봉·흑염소 과정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지역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와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임실군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양봉 과정, 흑염소 과정 두 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30명 내외,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총 60시간, 15회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농촌진흥청, 대학교수, 선도농가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과 실습, 우수 농가 현장 견학을 병행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봉 과정은 기초 관리, 병해충 이론, 계절별 관리 등 핵심 이론 교육 중심으로 구성되며, 흑염소 과정 역시 산업 현황, 번식·사양, 영양·위생관리 등 농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실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력육성팀(063-640-5023)으

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장(전소영)은 “올해 농업인대학은 임실군 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실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준비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 농업인대학은 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32개 과정, 9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자 모집

초등학생 1백명 선착순 모집 원거리 학생택시비 지원

무주군은 ‘2026년도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4.2.~11.5. 매주 목요일, 등나무운동장 / 1~3학년 15:30~16:30, 4~6학년 16:30~17:30)’에 참가할 지역 내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17:00)할 예정으로, 5일은 초등학교 5~6학년, 6일은 3~4학년, 7일은 1~2학년 학생이 신청하면 된다.

방법은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을 검색한 후, 채팅방에 학생의 학교명·학년, 이름, 그리고 보호자 성명, 연락처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이를 통해 1~2학년 학생 30명, 3~4학년 학생 40명, 5~6학년 학생 30명 등 총 100명을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무주읍 외 원거리 거주(면 지역)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택시 교통비도 지원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무상지원 ‘본격’

GPS 기반 손목형 기기 50대 보급

장수군은 지난 23일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무상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GPS 기반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배회감지기는 시계형으로 대여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치매환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핀 범위를

설정해 치매환자가 지정된 구역에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지정구역 이탈 알림과 함께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알림까지 제공된다.

장수군은 올해 총 50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기기 구입 비용과 2년간의 통신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의 실종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로, 보호자가 단독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나 보호자 방문은 필수이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치매안심센터(063-350-26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봄철 산불감시원, 전문교육·훈련 실시

임실군은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봄철 산불감시원 71여명을 대상으로 군청 농민교육장 및 산불대응센터 일원에서 “산불방지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시 원활한 임무수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불감시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산불방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강사를 초빙해 △산불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산불신고 및 상황전파 체계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수칙 △산불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안내 등으로 구성되

었다. 특히 산불진화장비 활용법, 응급 처치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임실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감시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예찰 활동과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한편, 임실군은 산불조심기간(2026. 1. 20. ~ 5. 15.)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농촌 관광 인프라 강화

진안군은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2026년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안군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후 처음 열린 자리로,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민박 시설의 수준을 높여 방문객에게 첫인상부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사업은 이러한 지역 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원(보조 50%, 자부담 50%) 규모로, 노후 민박 시설의 안전시설 강화, 위생·편의시설 개선, 외관 정비 등을 지원한다.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박 시설 수준 향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접수된 16개소에 대해 현장 실사와 정량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기본 및 안전시설 준수 △신고 지번 외 시설 제외 △무허가 건물·영업 실적 미비 시설 제외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 결과 최종 11개소가 선정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군, 지역기업과 가족이 함께하는 장학금 기탁 이어져

(재)고창군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기탁 열기가 끊이지 않아 새해첫날부터 총 30건에 8000만원의 기탁금이 모금되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역기업과 가족이 함께하는 장학금 기탁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설 명절 전 교수농공단지에서 연경전자를 운영하는 김정욱 대표가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24일 효성철물건설 안동필 대표가 자녀의 임용고시 합격의 기쁨을 고창의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200만원을 기부했다. 내고향푸드 영농조합법인 정배균 대표도 300만원을 전달하며 고창 미래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온정을 보였다.

무림개발조경의 이슬·진두만 대표는 4명의 자녀(진희원, 진희수, 진희진, 진희정)와 함께 3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더해 백일을 맞은 아기 조이솔 양의 부모인 조기창·한송이씨도 자녀의 이름으로 100만원을 기탁하며, 아이의 생애 첫 기념일을 뜻 깊은 나눔으로 장식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검산동지사협, '세대공감 쿠키클래스' 추진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기심)가 26일 관내 아동과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세대공감 쿠키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전통놀이인 비석치기와 전통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첫 순서인 비석치기 활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놀이 방법과 요령을 직접 알려주는 등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렸으며, 이어 진행된 전통과자 만들기를 통해 어르신들은 전통 간식에 담긴 의미와 만드는 비법을 설명했고, 아이들은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껏 재료를 섞고 모양을 다듬으며 협동의 즐거움을 배웠다.

/김제=온봉기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장학금 500만원 기탁

지역 인재육성 위한 나눔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은 26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장수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림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장수군 장학생 선발·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상대 조합장은 "장수군의 푸른 산림처럼 우리 학생들도 곧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산림조합에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정성은 장수군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해주시는 뜻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는 26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 <사진=장수군>



무주청소년수련관, 개관 20주년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청소년수련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26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김주형 관장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무주군 청소년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청소년수련관의 존재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새길 수 있었다"라며 "오늘 전하는 장학금에는 그 소중함이 담긴 만큼 무주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남원 와운마을,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 성황리 개최

"전통문화 자산 보존·계승에 지속적인 노력 기울이겠다"

지리산의 안녕과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가 26일 오전 10시, 남원시 산내면 와운(臥雲)마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와운마을 주민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구름도 쉬어간다'는 와운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됐다. 행사는 산내

농악단의 흥겨운 터울림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 마을의 평안과 주민의 무병장수를 비는 제례 의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산내면 와운마을 이장님은 "이번 당산제를 통해 천년기념물인 지리산 천년송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전통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농협 완주군지부, FLL 출전팀에 격려금 전달

NH농협 완주군지부가 세계적인 로봇 축제인 '퍼스트 레고 리그 (First LEGO League, 이하 FLL) 월드 페스티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완주군 봉동읍 청안초등학교 '에버그린(EVERGREEN)' 팀을 응원하기 위해 격려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26일 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국형욱 NH농협 완주군지부 부지부장과 오동인 지점장, 청안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이우진 교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안초등학교 '에버그린' 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5-2026 FLL 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종합 1위인 챔피언상을 거머쥐며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세계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마음껏 발휘하고 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비타민G&P, 도내 취약계층 위해 백미 100포 기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유비타민G&P대표 유진숙)가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을 위해 백미 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된 백미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해 희망공차 결연세대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에서 관측물과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여성기업인 (유)비타민G&P는 2025년 정읍·무주 지역 산물 발생 당시 양모이불 100세트를 기부한 데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유진숙 대표는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Advertisement for JBT's 'Seodaekonggam Kuking Class' with details on location, date, and time.



지금 우리가 강물에 무관심할때, 강물은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물의 비병에 귀 기울이고 행동할때, 비로소 맑은 강과 건강한 미래를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一事一言〉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 - 희망의 로드맵 그리자

김관춘
주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전북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전북 방문이자, 대선 후보 시절 전북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의 재방문이다. 그 사이 전북 도민들의 기다림과 기대는 차분한 인내의 시간이었다.

전북의 지역 현안은 산적했고, 전북은 산업 전환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 경로를 가늠할 중요한 정치·정책적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타운홀 미팅의 핵심 의제는 단연 전북 산업지형의 대전환이다. 반도체·AI·방산·조선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는 전북이 변방이 아닌 핵심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제2점단 소재 케미컬 실증센터 구축은 전북이 수도권 중심 반도체 생태계의 보완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첨단 화학소재와 정밀 케미컬 분야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전북이 실증과 사업화를 잇는 플랫폼을 확보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조 혁신을 위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역시 전북 산업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다. AI와 로봇, 센서, 데이터가 결합된 지능형 제조체계는 지역 산업의 생산성 향

계를 넘어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가 많은 전북 산업 특성상 현장 적용형 AI 교육과 실증 인프라 구축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 될 것이다.

새만금을 RE100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구상은 전북을 탄소중립 시대의 글로벌 산업 전진 기지로 만드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산업 벨트 구축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핵심 인프라다.

여기에 탄소섬유와 복합 소재를 활용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군산조선소 가동과 군함·공용선 생산, 해군 MRO 특화단지 조성 등 방산·조선 연계 전략은 전북 제조업의 부활을 견인할 현실적 카드다.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단지 지정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전북은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할 수 있다.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 역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새만금 스마트팜 대규모 온실단지 조성은 청년 창업 유입과 수출형 농업 모델 구축을 동시에 겨냥한 중요한 전략이다.

헬프산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동물헬스케어 산업 거점 구축 등은 전북이 농생명 산업의 단순 생산지를 넘어 기술 기반 바이오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다. 항만·철도·공항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활용한 K-푸드 수출 허브 구축은 전북을 동북아 식품 산업의 관문으로 만들 잠재력을 갖는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도 타운홀 미팅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이다. 인구 감소와 재정 한계를 넘어서는 구조적 해법으로서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닌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인센티브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제시돼야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가 제시된다면 전북은 지방소멸 대응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는 전북만의 문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비슷한 전국의 수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트러거 역할을 하면서 행정 통합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전 역시 이번 타운홀 미팅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단계적 면제, 새만금사업법 개정, 공공주도 개발 확대 등 제도적 혁신 없이는 대규모 전략산업 단지 구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SOC의 선제적 구축은 기업 투자 유치의 전제 조건이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이다. 교통망은 산업과 인구 이동의 혈관이며,

올림픽은 도시 인프라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전략적 이벤트다.

이와 함께 1,400조 규모의 연금기금을 품은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으면 전북 혁신도시를 자본시장 허브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전북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현안 청취를 넘어 전북이 어떤 국가 전략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한다. 도민들은 구체적인 약속 이행 로드맵과 정책 실행 의지를 듣고 싶어 한다.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의 섬'이 아니라 국가 산업·농생명·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지역 현안 해결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고, 전북 도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 주기를 기대한다.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정책적 결단과 실행의 시작이 될 때, 이번 전북 타운홀 미팅은 전북 도정과 지역 사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설

초공간·초연결·초가속...창업 천국 전북의 승부수

전북자치도가 '벤처 불모지'라는 오래된 굴레를 벗고 '하이퍼 창업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자본과 인재의 역외 유출을 속명처럼 감내해 온 전북이 이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2030년까지 유니콘 1개, 2029년까지 상장사 10개, 2028년까지 TIPS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1·10·100' 목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연 자신감 위에서 나온 구체적인 이정표다.

그동안 지역 창업 정책은 보조금 지원에 머무르기 일쑤였다. 그러나 전북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직접 투자, 회수 수익의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며 '투자-회수-재투자'의 생태계를 설계했다. 자본의 뿌리를 지역에 내리게 하는 구조적 전환 없이는 창업도, 혁신도 공허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비전의 핵심은 '초공간·초연결·초가속'이라는 세 축이다. '초공간'은 전북 전역을 하나의 유기적 창업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이다. 2028년까지 350억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전주에서 익산·군산으로 이어지는 키움공간을 권역별 거점으로 확장한다.

여기에 14개 시군 지원 플랫폼을 통합하는 AI 기반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가 가동되면, 자본·공간·컨설팅이 실시간으로 매칭되는 지능형 인프라가 구축된다. 창업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로 승부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초연결'은 전북의 경계를 세계로 확장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발판으로 해외 유망 스타트업과 창업 인재를 유입하고 정착 지원금과 사업화 자금, TIPS 연계로 안착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구축까지 현실화된다면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글로벌 창업 지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초가속'은 성장의 단절을 막는 안전망이다. 전북형 TIPS 트랙, 피지컬 AI 특화 프로그램, 대·중견기업과의 동반 성장 경로는 기술 창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할 것이다. AFTER TIPS 펀드로 자금 공백을 메우고 공공실증부터 혁신제품 지정·공공구매까지 이어지는 하이패스 체계는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여기에 5천억 규모의 '유니콘 엔진 펀드'와 우수 VC에 대한 펀드결성 프리패스 제도는 투자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견인할 장치다.

물론 숫자 목표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 민간의 신뢰다. 행정은 페이스메이커가 되되, 주인공은 기업과 창업가여야 한다. 규제 혁신, 실패에 대한 관용,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병행될 때 비로소 '하이퍼'라는 수식어는 현실이 된다.

전북에서 시작한 이 아이디어가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청년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도민은 변화를 체감할 것이다. '창업 천국 전북'은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과감한 투자와 치밀한 실행에서 시작된다. 전북이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대한민국 창업 지도를 다시 그리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희망 / 나태주

날이 가면 시장에 가리라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힘들여 페달을 비벼며
땀수룩 소로길을 찾아서
개울길을 따라서
흐드러진 코스모스 꽃들
새로 피어나는 과꽃들 보며 가자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약수를 청하며 인사를 할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휘파람이라도 불 것이다
어느 집 담장 위엔가
넝쿨풍도 올라와 열렸네
석류도 바깥세상이 공명하네
고개 내밀고 얼굴 붉혔네
시장에 가서는
아내가 부푼 반찬거리를 사리라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사 가지고 오리라

시인 약력 : 1945년 충남 서천 출생.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초등 교사 재직 중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대술 아래서'로 등단했고 1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풀꽃'이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주문화위원장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43대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다.

독자광장

적재 불량 화물차량, 도로에서 OUT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고 싶은 차량들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아슬아슬하게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들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들을 만나게 되면 속도를 내 추월하거나 다른 차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이러한

차량들을 피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일들의 원인은 한가지,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 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대수이다.

이러한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적재 불량 차량을 운행 시 발견하게 되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



해 신고기준에 맞춰 간단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자 배정 후 위반을 판단,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운전 중으로 할일이 어렵다면 112에 신고하여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적재물을 올바르게 적재하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지혜

문화재



운산리 삼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탑
- 지정일 - 1971년 12월 2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423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화/ 목요일 전북 가-00022(만2)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3015-4791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N치즈 천만관광”

생활인구 110만명
돌파로 증명하다!

‘체류인구 6.5배’ 도내 2위 ‘압도적 체류 경쟁력’ 체류인구 소비 비중 55.9%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살린다’ 임실N치즈·옥정호 붐어섬 효과 ‘천만관광 임실’ 현실로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정부 인구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활력 회복과 지방정부 시대 실현을 향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산출하는 생활인구 통계를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가운데, 임실군이 변화된 인구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한 ‘거주인구 늘리기’에서 벗어나 찾고, 머무르고, 소비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핵심자산으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임실군은 생활인구 확대를 지역발전 전략의 중심에 두고 관광·정주·산업을 연계한 종합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임실군의 생활인구는 완만하지만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임실군의 생활인구는 2024년 상반기 109만 8,343명에서 2025년 상반기 110만 2,7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1명이 증가했다.

2024년 연간 생활인구는 232만 4,932명으로 집계돼 임실군이 소규모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두배가 넘는 생활인구 유입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임실군은 체류인구 지표에서 도내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임실군의 연평균 체류인구 배수는 6.5배, 2025년 상반기에만 6.1배로 나타나 도내에서 무주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상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관광·축제 중심의 체류형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다.

체류인구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여도 또한 통계로 확인된다.

체류인구의 지역 내 카드사용액 비중은 2024년

55.9%, 2025년 상반기에만 45.4%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소비가 지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류 인구가 단순 방문객을 넘어 지역 상권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소비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임실N치즈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광자산 구축이 자리하고 있다.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한 ‘임실N치즈’를 기반으로 한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붐어섬 조성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투자와 콘텐츠 축적의 결과물로 현재는 임실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사계절 축제와 관광콘텐츠 확장을 더하며 임실군은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현실적 목표로 끌어올리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함께 정주여건 개선 정책도 생활인구 확대의 또 다른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임실군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스마트팜 영농단지 구축, 임실봉황인제학당 운영, 농촌유학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주거·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의 안정적 유입과 정착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임실군은 체류인구의 재방문과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문화정책 확대를 위해 우수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반려문화 체험 콘텐츠 운영, 성수산 자연치유 힐링공간 확장, 필봉품물문화촌 기능강화, 임실정주활력센터 건립 등 기존 자원의 고도화와 신규 수요 창출을 병행해 생활인구 확대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넓힌다는 전략이다.

심 민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는 단순한 방문객 증가가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관광 성과와 정주 기반 확충 정책을 토대로 인구감소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갖춘 ‘사계절 천만관광 임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